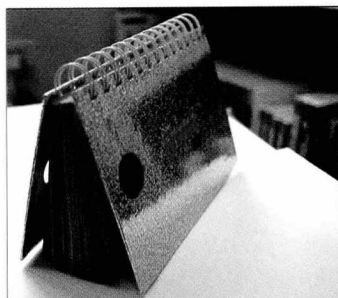




# 책에 구멍이 뚫려있네? 신기한 스도쿠<sup>數獨</sup> sudoku 다이어리

스도쿠는 가로, 세로, 박스 안에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이용해 빈칸을 채우는 숫자 퍼즐이다. 간단한 게임물만 익히면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도쿠책’이 출판되기 시작되기 시작해 현재는 70여 권에 가까운 책이 서점에 소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최근 스도쿠분야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다. 흥미로운 편집과 과감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함께가는길의 ‘스도쿠다이어리 (sudoku diary)’가 그것이다.

## 스도쿠 다이어리-손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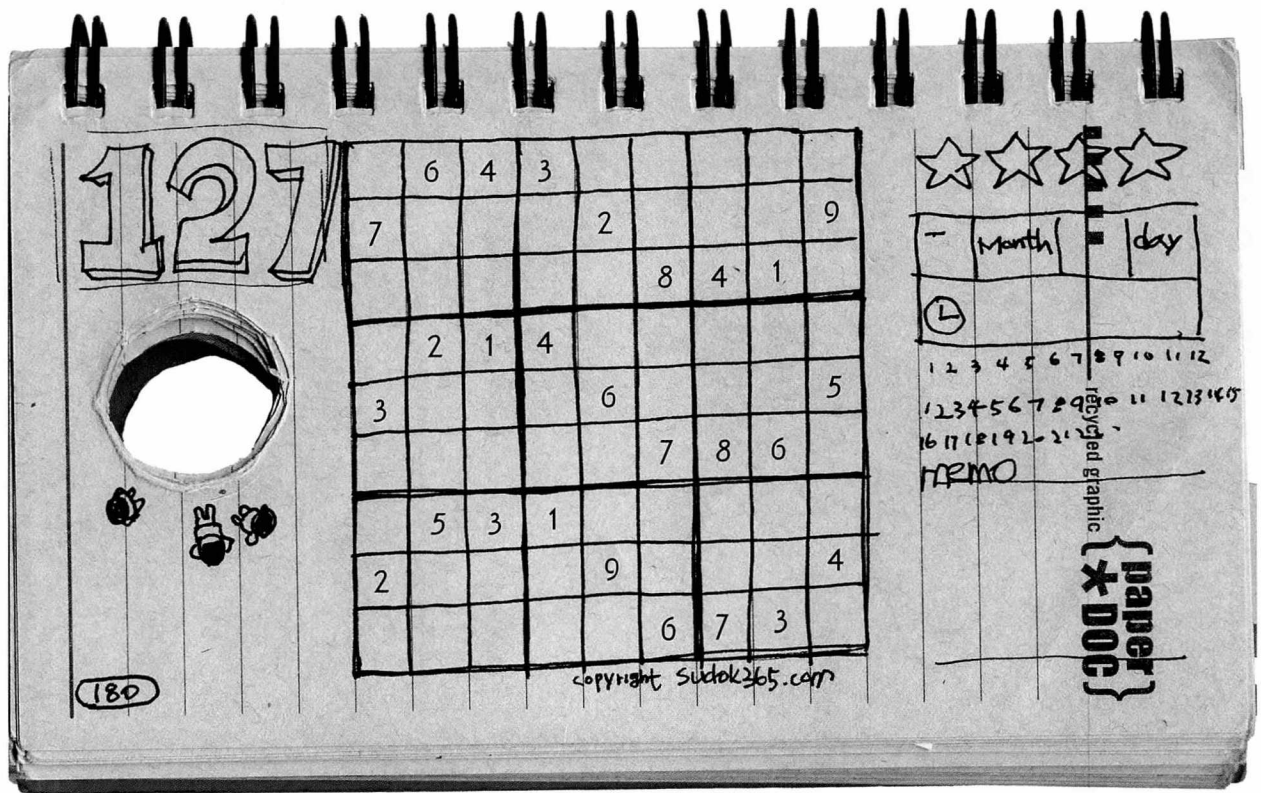


판형 11cm×18cm  
제본형태 링제책  
표지 홀로그램  
인쇄 영창인쇄  
제작기간 기획진행 - 3개월  
스도쿠다이어리 표지 모습

도서출판 함께가는길(대표 당현준, www.way2u.co.kr)에서 색다른 스도쿠책을 내놓았다. 스도쿠라는 게임은 변함이 없지만, 책의 형태는 일반 스도쿠책과 크게 다르다. 홀로그램코팅을 이용해 표지를 만들고, 책의 한가운데를 뚫은 것은 물론이고, 링제책으로 완벽한 넘김, 펼침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분 비용적인 문제들, 또는 기타 시장성을 이유로 시도되지 않던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했다. 이렇게 스도쿠책에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스도쿠 다이어리를 기획, 제작한 손호성 작가는 “스도쿠 게임을 모아놓은 책은 좀 더 흥미로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스도쿠를 좀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 기획과정

스도쿠다이어리를 제작한 손호성 작가는 기존 스도쿠책의 모습에 불만이 많았다. 책의 형태가 게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스도쿠는 '숫자들이 겹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의 일본어 조어다. 이 게임은 가로·세로 9칸씩 총 81칸으로 이뤄진 정사각형의 가로·세로줄에 1~9의 숫자를 겹치지 않게 적어 넣는 퍼즐방식이다. 가로·세로 3줄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서도 1~9가 겹치지 않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책의 느낌을 줄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우연히 메모수첩에서 힌트를 얻어, 메모장에 이런저런 스도쿠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메모장은 너무 작으면 눈이 피로하고, 너무 크면 이동 중에 가지고 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 되도록 한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눈의 피로가 덜한 형태를 선택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링제책 형식은 일반 무선제책보다는 넘김이 편리하지만, 한손에 들고 풀기에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메모장에 구멍을 한번 내보기로 했다. 귀퉁이를 잘라보기도 했고, 구멍의 종류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으로 바꿔보기도 했다. 결국 손가락을 끼워서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판단했고, 과감하게 책에 구멍을 뚫기로 했다.

그러나 링제책과 구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2퍼센트 부족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스도쿠를 즐기고 있는지 알아야 했죠" 손호성 작가는 시장조사를 통해 스도쿠를 즐기는 사람들이 20대 중후반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스도쿠책 구매고객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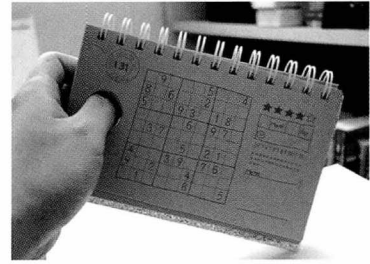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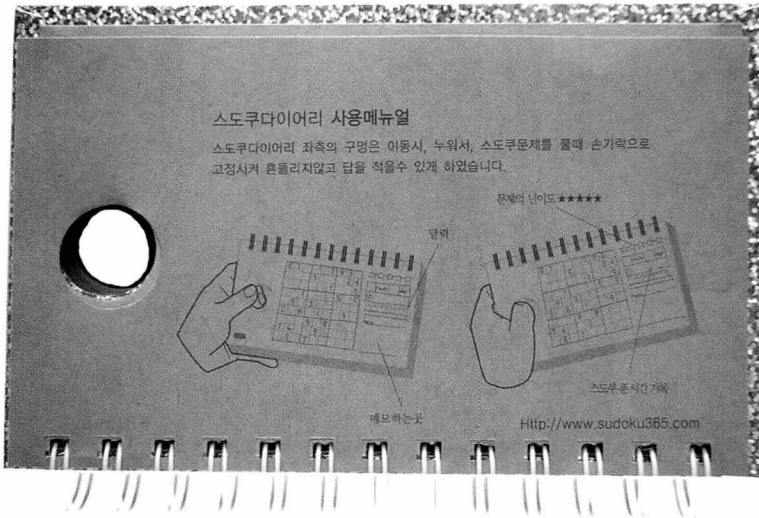
이런 여성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지를 조금 화려하게 꾸미기로 결정했다. 일본잡지표지로 사용되는 은색코팅지를 이용해 먹박으로 디자인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 좀더 독자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했으면 좋겠다 - 디자인과정

손호성 작가는 스도쿠 문제만 반복되면서 오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다. 스도쿠의 사각형 창과 스도쿠 주변에 스케치를 직접 그려 넣어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살렸고,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지인 크라프트지를 사용했다. 또 글자색도 부담스럽지 않은 갈색을 사용했다.

책의 시작부분에는 스도쿠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스도쿠문제를 푸는 방법과 예제를 친절하게 설정해 놓았다. 내지에는 메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메모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난이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별표란과 시간을 체크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다양하게 스도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스도쿠의 정답을 공개해서 자신이



폰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 디자이너의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결국 '인쇄', '후가공' -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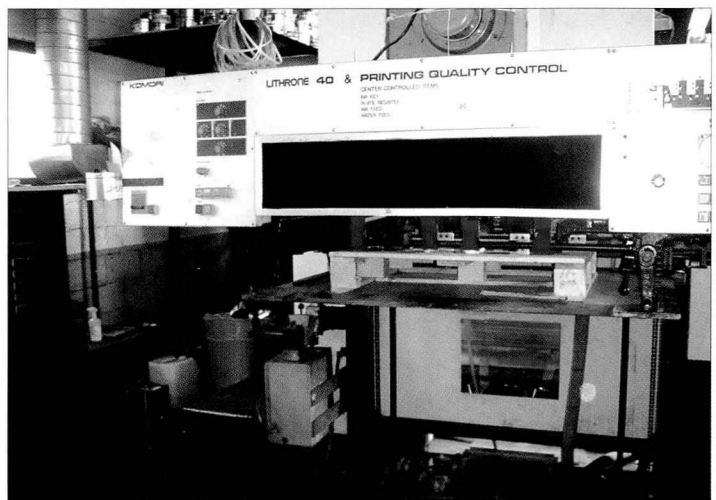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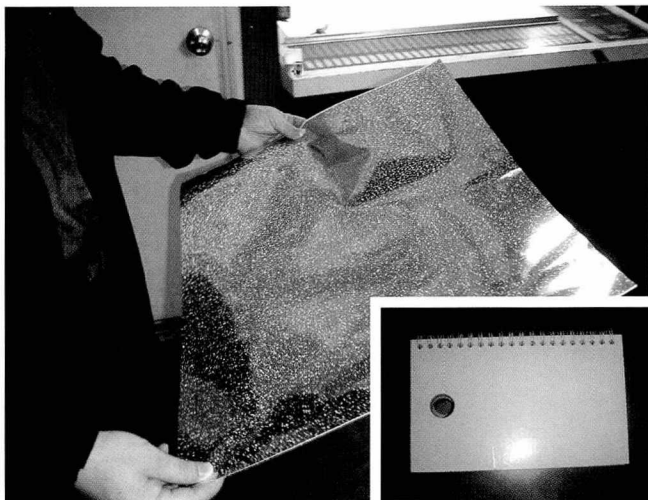
책의 완성도는 얼마나 적절한 협력업체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판가를 난다. 당현준 대표는 그런 면에서 '스도쿠다이어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스도쿠다이어리'는 크라프트지의 거친 종이를 인쇄해야 했고, 은박코팅의 표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UV코팅인쇄도 가능해야 했다. 이런 까다로운 인쇄를 하기 위해서 몇군데 업체를 추천받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 '영창인쇄'에서 작업을 했다. '영창인쇄'는 규모는 작지만 인쇄품질이 뛰어나고, 작업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쇄사였다. 그래서 인쇄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문제는 표지에서 시작됐다. 은박코팅지가 생각보다 품질이 낮았던 것이다. 가는 선이 굵힌 듯 하게 표현되었는데, 표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았지만, 은박표지를 대체할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홀로그램표지를 알게 되었는데, 기본 물량이 너무 많아 스도쿠책으로서는 꽤 많은 양인 초판 5000부 이상을 찍는 모험을 해야 했다. 또 홀로그램종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스도쿠다이어리'의 표지에 표시하는 것이 문제였다. 바탕에 흰색을 씌우고 그 위에 제목을 디자인해 UV코팅인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음은 구멍을 뚫는 것이 문제였다. 톱슨 가공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나눠 동일하게 찍는 건 무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종이를 모아 찍을 수도 없었다. 종이를 두겹게 찍을 경우에 책 전체가 찌그러졌기 때문이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은 아래에

3		6		5		9		1
	1		8	9	7		6	
9		7		3		4		2
	2		5		1		3	
7		8				1		5
	3		4		2		9	
1		5		2		3		9
	9		6	1	3		5	
2		3		4		8		6

초급

	7						6	
9		4				5		2
	8		1		9		3	
		5		7		6		
			8		4			
		9		2		3		
	5						4	
6		7		8		1		3
	1		3		7		9	

중급

다. 그렇게 부분 부분 기계로 나눠 찍던 중, 틈손가공칼이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공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생산 원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 온오프라인 서점 스토쿠분야 1위 - 책의 완성

책이 서점에 나오자 반응이 좋았다. 비슷비슷한 스토쿠책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홀로그래름을 이용해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도 여성독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한 것으로 보였다. 도서출판 함께가는길 홈페이지에는 스토쿠다이어리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용기를 하나 둘씩 올리기 시작했고, 사용기는 대부분 책의 완성도에 대한 호평들이었다. 한 주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에서 스토쿠다이어리를 풀고 있었는데, 어떻게 책에 구멍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라며 감탄을 했다는 글로 책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스토쿠 다이어리가 손가락에 끼워지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호응 속에서 발행한지 3개월 만에 온오프라인 서점 스토쿠 분야 1위를 차지했고, 아직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책의 콘텐츠 못지않게 책의 외적인 디자인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토쿠다이어리'는 잘 보여준다. 이는 서적기획, 디자인이 표지디자인을 넘어 인쇄, 후가공의 단계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이런 수요가 적어 작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상당히 높은 단가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김정삼기자 sang@print.or.kr



8	6	4	3	1	9	5	2	7
7	1	5	6	2	4	3	8	9
9	3	2	7	5	8	4	1	6
6	2	1	4	8	5	9	7	3
3	8	7	9	6	1	2	4	5
5	4	9	2	3	7	8	6	1
4	5	3	1	7	2	6	9	8
2	7	6	8	9	3	1	5	4
1	9	8	5	4	6	7	3	2

앞면

3	8	6	2	5	4	9	7	1
4	1	2	8	9	7	5	6	3
9	5	7	1	3	6	4	8	2
6	2	9	5	8	1	7	3	4
7	4	8	3	6	9	1	2	5
5	3	1	4	7	2	6	9	8
1	6	5	7	2	8	3	4	9
8	9	4	6	1	3	2	5	7
2	7	3	9	4	5	8	1	6

초급

3	7	1	2	4	5	8	6	9
9	6	4	7	3	8	5	1	2
5	8	2	1	6	9	4	3	7
1	2	5	9	7	3	6	8	4
7	3	6	8	1	4	9	2	5
8	4	9	5	2	6	3	7	1
2	5	3	6	9	1	7	4	8
6	9	7	4	8	2	1	5	3
4	1	8	3	5	7	2	9	6

중급

스토쿠다이어리를 출판한 도서출판 함께가는길은 종이접기, 스토쿠 등 실용서를 출판하는 1인출판사다. 2004년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10여권의 책을 펴냈다. '함께가는길'은 1인출판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토쿠다이어리'도 몸집이 큰 출판사에서서는 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출간된 책의 날개, 또는 뒷면에는 수익이 전달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보육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